

우리 동네 안전 파수꾼

원흥도래울마을 신박강·홍성걸·김용화 실버보안관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이야기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주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 원흥도래울 1·2·3단지의 명물로 통하는 실버보안관 삼총사를 만났다.

글. 임도현(편집부) 사진. 조병우



(좌측부터) 신박강(3단지)·홍성걸(2단지)·김용화(1단지) 실버보안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매 순간 보람을 느끼는 경로당의 책임자

오후가 되자 어르신들이 속속 경로당으로 모여든다. 체온을 재고 이름을 적는 것은 필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해가며 도래울 1단지 실버보안관 김용화(75) 씨가 꼼꼼하게 방역을 체크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경로당을 모두 폐쇄했어요. 지난 여름부터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쉼터로 이용하기 위해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원흥도래울 아파트단지에 실버보안관이 생긴 건 지난 7월이다.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시설관리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각 경로당 회장을 실버보안관으로 임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558명의 실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다. 2단지 실버보안관을 맡은 홍성걸(80)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실버보안관은 마을 노인을 보살피는 명실상부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직접 찾아가서 거동을 돕기도 해요. 저 역시 노인이라 몸은 힘들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매 순간이 그렇게 보람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척척

원흥도래울 아파트단지 실버보안관들은 매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이곳 단지는 물론 삼송동의 경로당 회장이 ‘깔끔이 봉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화단 가꾸기나 아이들의 통학에 맞춰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단지별로 경로당이 번갈아 가며 주변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돈독히 유대를 쌓고 있다. 실버보안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경로당 환경개선으로도 이어졌다. 3단지 실버보안관 신박강(78) 씨는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장본인이다.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CCTV가 큰 역할을 합니다. 경로당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응급신호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119를 부르거나 제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요. CCTV를 설치한 후부터 안전사고나 도난, 화재 등 불미스러운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도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다시금 웃음을 되찾기를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실버보안관들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단지 내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을 우려해 외출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혹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경로당으로 놀러 와 담소를 나누자고 청하는 등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실버보안관들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기를 이구동성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노인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 마음껏 웃으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세요.”